'바다Ⅱ'

형과 색 절제의 미학

서양화가 김혁정 개인전 14~20일 서울갤러리

서양화가 김혁정씨가 14일부터 20일까지 서울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김씨는 일체의 수식이나, 장식을 덜어내고 형과 색을 절제한 화면 구성을 통해 자연의 미감을 드러내는 작업을 추구하고 있는 작가다.

이번 전시에서는 '해안선 Ⅰ', '바다', '섬' 등 해안의 풍경을 한층 조형적으로 해석한 그림들을 통해 자연의 깊고 오묘한 속살을 들춰낸다.

그는 특히 바닷가 풍경을 단조로운 선과 드넓은 화면 분할로 재해석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사물을 응시하는 작업세계를 선보인다.

캔버스에 담긴 해안의 풍경은 자잘하고 세밀한 붓질을 생략함으로써 드넓은 초원을 연상케하는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등 자연을 보는 작가의 또 다른 시선을 느끼게 한다.

바다에서 대표적인 자연소재인 나무로 눈길을 돌린 '나무에서 나무로부터' 연작은 풍성한 나뭇가지와 화려한 잎사귀의 이면에 감춰진 자연의 숨은 미학을 조명하고 있다.

김씨는 광주서중·일고와 전남대 미술 교육과, 동대학원을 졸업한 뒤 파리 소르본느 제1대학 조형미술학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여수 한영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2006 광주비엔날레 결산 ㊦ 대회운영

단체 유치 치중… 관람문화 실종

저소득층·장애인 등 소외계층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부대전시 산만…외국인 관람객 3% 국제행사 무색

2006 광주비엔날레는 소외계층 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전시문화를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실질적인 운영에서는 창설 12년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번 비엔날레에서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였다. 비엔날레는 사상 처음으로 저소득층과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무료관람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소외계층에게 폭넓은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했다.

또 추석에는 한복과 각 국 전통의상을 입은 관람객들을 입장시키는 등 색다른 이벤트로 주목을 끌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13일 하룻 동안에만 광주비엔날레 사상 최고인 1만9천845명이 입장하는 등 관람수익과 문화 저변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본 전시에도 이 같은 행사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70만111명이 비엔날레를 찾았고, 입장료, 후원·협찬금 포함 비엔날레 총수익도 46억원을 기록했다.

본전시가 이 처럼 성황을 이룬 반면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린 '미술오케스트라'와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열린 '동아시아 색채전'은 홍보 부족으로 철저하게 관람객들로부터 외면당했다.

본 전시관 입장객이 70만명을 헤아렸지만 부대전시 입장객은 동아시아 색채전 6만7천171명, 미술오케스트라 2만5천408명 등 모두 9만2천579명에 그쳤다.

특히 입장수익 확보에 치중한 나머지 단체 관람객을 대거 유치, 관람문화가 실종된 것은 이번 비엔날레의 가장 큰 흠으로 지적됐다.

1일 평균 1만여명의 관람객을 전시장에 몰아넣는 바람에 입장객들은 관람이 아닌 '곤욕'을 치르는 상황이 되풀이 됐다. 이는 비엔날레 창설 이후 12년째 되풀이되고 있는 병폐다.

2006광주비엔날레는 1일 평균 입장객 1만명이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전시관 수용 적정인원(6천명)을 고려하지 않은 단체 관람 유치로 '관람문화 실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출품작 89점 가운데 29점이 영상작품으로 1개 작품만을 보더라도 평균 15~30분 가량 걸리지만 단체 관람 인파에 떠밀려 관람객들은 정작 평면 작품도 제대로 감상하지 못했다.

특히 외국인 관람객수가 3만명에 그친 것은 광주비엔날레가 여전히 '국내잔치'에 머물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했다.

비엔날레 재단이 그 어느 대회보다 해외 홍보에 치중했음에도 이 같은 현실이 되풀이된 점으로 미뤄 해외 홍보 마케팅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비엔날레가 광주 지역민들의 축제로 승화되지 못한 점도 아쉽다. 비엔날레는 옛 전남도청 일대에서 열기로 했던 개막식, 미술오케스트라 등의 행사 장소를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립미술관으로 옮김으로써 축제 분위기를 광주 전역으로 확산하는 데 실패했다.

100억을 들여 행사를 개최하면서도 이렇다할 지역경제 기여 효과가 없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비엔날레 기간 동안 광양 전어축제(9월15일~17일), 강진청자문화제(10월14일~22), 충장로 축제(10월17일~22일) 등 수많은 축제가 열렸지만 이들 축제와 연계해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프로그램이 사실상 전무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이슈 없이 끝난 비엔날레

부끄러운 얘기이지만, '비엔날레(Biennale)'라는 단어를 처음 접한 것은 취업준비를 하던 대학 4학년 때였다. 당시 일반상식 책에 설명된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국제 현대미술전시회'라는 사전적 의미가 머릿속에 쉽게 그려지진 않았지만, 시험에 나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무작정 외웠던 기억이 있다.

그로부터 불과 20여 년이 지난 요즘, 비엔날레는 유치원생들도 알만한(?) 일상용어가 됐다. 올해로 창설 12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 때문이다. 지난 95년 척박한 문화토양에서 태동된 광주비엔날레는 예술과 대중의 간극을 좁히며 아시아의 대표 비엔날레로 자리매김했다.

사실 광주비엔날레의 등장은 '센세이션' 그 자체였다. 설치·영상위주의 난해한 현대미술을 접한 관람객들은 적지 않은 문화충격에 빠졌다. 이는 비엔날레가 미술관 전시와 구별되는 아방가르드(전위예술)적 속성을 보여준다. 너무 앞서가거나 튀는 작품, 제작비는 많이 드는데 판매할 수는 없는 작품, 미술관이나 갤러리가 다루기 힘든 대작들을 볼 수 있는 곳이 비엔날레다.

이처럼 비엔날레는 새로운 시대정신과 전시패러다임의 창출을 우선시한다. 베니스 비엔날레와 리옹 비엔날레가 메이저 비엔날레라며 목에 힘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같은 미학적 차별성에서 나온다. 이들 비엔날레들은 개막과 동시에 국제 미술계에 굵직한 화두를 제기해 수많은 비평적 담론들을 양산한다. 그 담론의 파장이 크면 클수록 비엔날레의 위상이 올라감은 물론이다.

지난 11일 2006 광주비엔날레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조용한 축제'(?)로 막을 내렸다. 행사기간 동안 관람객들의 고정관념을 뒤엎는 센세이셔널한 작품은 고사하고, 미술계의 반향을 일으키는 이슈 하나 없이 밋밋하게 끝났다. 최첨단 미술의 경연장이라는 비엔날레의 취지가 무색하게, 이미 다른 비엔날레나 전시회에 출품됐던 '기존작품'들이 상당수 출품돼 신선도를 떨어뜨렸다.

이를 두고 미술계 안팎에서는 광주비엔날레의 지향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매번 예술 총감독이 바뀔 때마다 비엔날레의 성격이 180도 달라지는 현 광주비엔날레의 구조적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우려를 아는지 모르는지, 비엔날레 재단은 관람객 70만 명이란 성적표에 한껏 고무되어 있다. 외형적인 성과로 보자면 '성공대회'인 셈이니 그럴만도 하겠다. 하지만, 비엔날레가 새로운 담론 없이, 미술관 전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교과서적인 콘텐츠'로 만족한다면 더 이상 비엔날레가 아니다.

재단은 이번 기회에 비엔날레가 무엇이며,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를 근본적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 '무늬만 비엔날레'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문화생활부장·jhpark@kwangju.co.kr〉

2007년 제18회시험 공인중개사 특강
일류교수진책임강의 ☞ 민법:윤철환 부동산학:김범 법령및실무:김봉억 부동산공법:이방원 공시법:윤철환 세법:유영교수
개강 12월 1일 합격률최고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남고시학원
www.Chonnamgosi.co.kr
전남여고맞은편 (광주 동부경찰서 뒤)
상담전화 ☎(062)222-5105

자영업자 전문대출
• 일일 상환 가능하신분
• 식당·유통·서비스업 운영자

자동차 전문대출
• 모든차량 가능 (저당·할부·가압류)
• 수입차·고급차 전문
• 24시간 상담 및 비밀 엄수

부동산 담보대출
• 아파트·빌라·상가·나대지·논·밭 임야 등등
• 은행·금고 대출 후 2~3번 추가 대출

주)신세계투자금융
대부업등록업체 서구 132호
☎(062)431-3130

대인동삼일부동산
☎(代)223-1140, 5210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인애공인중개사
핸 011-642-0391
횟집임대
• 고급횟집하실분환영
• 횟집으로 성공하실분
• 1층 2층 130평 탁자 42석
• 상무지구 김대중컨벤션 부근
• 임대내용은 횟집 보고 상담
횟집건물매매
• 고급횟집하실분환영
• 대98평 연건평 388평
• 6층건물 3층,4층,5층,6층 임대완료
• 1층, 2층 고급횟집 130평 탁자 42석(연회석 완비)
• 상무지구 김대중컨벤션 부근
• 상무지구를 주목하라 행정도시, 금융도시, 공공기관 집중
• 매도가 건물 보고 가격 결정 상담

일가공인중개사
☎(代)234-8216 핸 011-609-0896
(광주우체국뒤편)
상가부지 및 상가부지
·충장로 대지 50평 4층건물 26억
·충장로 대지 110평 4층 27억
·금남로 도청옆 70평 5층 20억
·운림동 증심사도로접 3백평 170만
·남동 대지25평 3층건물 2억
·금호동 아파트밀집 대로접 330평 담350만
·풍천동 티미널 대로접 2백평 담750만
·상무지구 상업지 120평 담1200만
·주월동 대동고 대로접 78평 4층 6억
·주월동 장미아파트앞 대2백평 담250만
·용선동 삼익아파트옆 대82평 담250만
·용봉지구 3면도로 대360평 현식당 담250만
·송정동 전철역앞 대1800평 담350만
·하남 우산동 상업지 2백평 9억
·운남동 아파트밀집지 6층건물 27억
전원주택 및 펜션부지
·지산동 보전녹지 1천평 담35만(주택가)
·운림동 대280평 담40만
·운림동 보전녹지 전340평 담90만 (주택허가30평)
·광주댐 안근 대지, 전 6백평 주택1동 담60만
·화순 도곡 관리지역 임야 3천평 담5만
·화순 사평 물가접 8백평 주택1동 1억
·화순 동면 관리지역 임야5천평 담2만
·담양읍 자연녹지 4600평 2차선도로접 담15만
·화순 사평 대2백평 주택1동 4천만
기타 부동산
·운림동 개발제한구역 임야2만5천평 담5만
·소태동 임야1만5천평 주택1동 담1만5천
·담양 월산 임야6만평 담9천원
·화순 사평인근 계곡접 임야4만평 담4천원
·화순이양 계곡접 임야4만평 담2천원
·청풍동 4수원지인근 취락지 250평 담60만
·화정동 자연녹지 350평 담30만
·첨단 신혈동 자연녹지 750평 담50만
·선암동 호대옆 자연녹지 9백평 담50만 4천평 5억(교환가)
※광주인근 관리지역 임야, 전, 답 구함
※황토주택 등호인을 모십니다.

LC타워(주)
☎(代)972-8004, 핸.010-7154-6996
첨단지구 LC타워
첨단 최고의 요지 최적의 조건으로 임대합니다.
★일일 유동인구 1만명이상
★유명메이커 운집
◉각종학원임대◉ 50~90평 라이브 홀 임대 222평
【각층분할가능】
병·의원 임대
3층:88평, 212평 안과, 피부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학원및 사무실 임대
30~90평 평수 다양 보유
스카이 라운지
5층:222평 스카이라운지, 휘밀리레스토랑

21세기컨설팅주식회사
10년전통! 투자의 길을 아는 사람들 ☎(代) 525-0021, 친절상담 011-612-3421
경매 투자자 투자상담 환영!!
법원경매·공매에 투자하여 부동산 절반값에 산다!!
* 경매낙찰시 엄청난 수익이 기대되는 물건 상담환영!!
1. 첨단지구 월계동 상업지역내 5층 건물 대지181평 준공1년된 건물 감정가 25억/최저가 12억
2. 화정동 터미널뒷편 현재 장례예식장으로 운영중임 7층건물 대지300평 감정가 35억/최저가 15억
3. 임동 자동차거리 도로코너변 대지 420평 감정가 32억/최저가 14억
대물로 받은 아파트 5채 긴급매매
1. 용봉동 현대아이파크 57평형 아파트 분양가 2억3천6백 49평형 분양가 2억3천7백, 대물로 받은 부동산 긴급처분 (분양가 이하로 매매가 조정 가능)
AAA급 깨끗한 건물 긴급 매각
1. 북동 롯데백화점건너편 도로변 대지50평 2층건물 매매가 2억5천 (은행대출 2억안고 매매가능)
2. 광암교4거리 주유소옆 건물5층 대지71평 임대용건물 회사사옥 사무실용도 적합, 동림2지구 개발완료시 발전가능성이 높은지역 매매가 5억3천(주인사정상 긴급매매)
3. 농성동 상공회의소 건너편 리모델링 완료된 4층건물 대지 150평 감정가 18억 긴급매매가 12억 임대 잘나가는 건물임
감정가50%공시지가50% 이하물건 긴급매매
1. 금동 호일백화점 2층 450평 감정가 18억 매매가 6억
2. 신안동 5층건물 감정가 27억 매매가 16억(부동산 교환도 가능)
현금투자 최요지 긴급매매
1. 광산구 고령동, 진곡동, 하남 제2산단 수용예정지역 1,300평 평당15만원
2. 양산지구 건너편 용두동 생산녹지 1000평 매매가 평당50만원 (신용등 주거지역 950평 매매가 평당 70만원 신축아파트입구 도로변 토지
3. 동림동→신가리 방면 하남로 도로변 대지 1000평 전시시설·공장·창고·건물 신축부지 등림2지구아파트단지 건너편 매매가 평당220만원
4. 광천동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상업지역 980평 긴급매매가 평당 450만원 오피스텔, 주상복합, 주차장용지 적합

2006년도 광주지역 예식장 선호도!!(극장식 웨딩홀) 만족도!!(음식이 맛있기로 소문난) 1위업체선정기념!!
예식비 대폭인하!!
예식장회원, 공무원, 경찰, 기타관공서, 각종기관단체직원 예식비 20% DC 중...
이젠 극장식 웨딩홀에서 결혼하자!!
센트럴시티웨딩컨벤션
www.ccgwangju.co.kr
• 결혼, 회갑연, 칠순연, 돌잔치, 동창회모임, 각종 행사를 호텔뷔페식으로...
■예 약 접수중 ☎675-8500 (광주대학교 입구)

현대공인중개사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급매물 상담 후 10일내 책임 중개
◀ 급히 구합니다 ▶
【건 물】
◉병원건물이나 병원으로 임대가 가능한 건물 현금15억
◉임대 소득이 높은 상가 건물
【토 지】
◉전원주택부지-광주시내나 장성, 담양, 화순
◉광산구 관리지역-삼도, 본량
◉평동공단 2차단지 부근 토지
◉투자 가치가 확실한 토지
◀ 급히 팝니다 ▶
◉하남 2지구 택지
준주거용지 170평 9억5천만원, 170평 9억원, 최고의 상권
◉학원, 정비공장, 식당, 창고부지
일곡동, 자연녹지, 424평, 25m도로에 접, 평당200만원
◉마륵동 김대중컨벤션앞
생산녹지 908평, 평당180만원
◉매월동 유통단지 택지
농산물 공판장앞 261평, 평당600만원
◉카센타, 식당부지
광산구 소촌동, 영광간 35m도로변, 140평, 평당280평
◉모텔:첨단, 대지 198평 건평600평 객실30개 대출10억 매도가 25억
◉물류창고부지
자연녹지, 비아 인터체인지 인근, 2400평 평당75만원(분할도가능)
◉창고 공장부지
210평, 평당 110만원 벽진동 주거지역
◉공장 창고부지(투자도가함)
관리지역, 광산구 왕산동 1600평 대형차량 진입가 평당14만원
◉원룸부지:금호동, 대지 237평, 평당 135만원
◉광송 간 도로변 상가부지:61평 평당 750만원